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파급효과
-충북지역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_

Ripple Effect of Participation in Regional Network by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 Focused on Social Enterprise in Chungcheongbuk-do Area -

박 대 호 (㈔사람과경제 - 주저자)
황 명 구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 공동저자)
네모토 마사쯔구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 교신저자)

1)

Abstract

Dae-Ho Park / Myong-Gu Hwang / Masatsugu Nemoto

This study analyzed the ripple effect of participation in regional network by social economic organization in Chungbuk province. Two networks are selected as case studies: Cheongju Resource Circulation Forum and Chungbuk Local Food Network. This study explained regional network participation of social economic organization's influences on realization of social purposes and economic activities. As a result, social safety net, eco-friendly activity and reciprocal resources were built while governance functioned among social economic sectors without government. Thus including governmental sector into regional network is necessary to improve its effect especially encourage positive participation in social economic revitalization strategy in the future.

주 제 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지역 네트워크, 사회적 가치, 경제적 가치

Keywords: social economy, social enterprise, regional network, social value, ecomonic value

* 본 연구는 박대호의 석사학위 논문(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역 네트워크 참여가 사회적 기여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2015)의 일부를 재구성하고 보완한 것으로,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NRF-2015S1A5B8046954)

Ⅰ. 서 론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비영리 조직 등 이른바 제3의 섹터(third sector)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세계적으로 제고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서는 특히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이론적, 실천적으로 다양한 진전을 해 오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생산 공동체 운동에 이어 외환위기 이후는 공공근로 민간위탁 사업, 2000년 자활지원 사업, 2003년 사회적 일자리 시범사업에 민간단체가 다수 참여하면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에 이르렀다. 나아가 2010년 마을기업 정책 추진,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 그리고 2015년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추진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소위 사회적 경제는 관련 제도 정비와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 과제로 제시되면서 지역주민이 직면하는 과제 극복에 구체적으로 기여하고 일정한 성과를 올려 오고 있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중에서 사회가 의미하는 바는 이윤 추구보다 지역과제 극복을 우선한다는 뜻으로 풀이되며 지역주민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 극복 등 이른바 십시일반 상부상조의 관계 재구축을 지향하는 것이다. 특히 정책적 문맥에서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협동조합 기본법을 주관하고 있으므로 소위 취약계층 노동통합과 서민경제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지만 그 외에도 낙후지역 발전, 친환경적 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정부지원, 시장경쟁 등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개별적 활동을 둘러싼 문제가 다수 제기되어 온 한편 지역사회의 연대적 관계망을 강화한다는 역할에 대해서는 비교적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네트워크에 관련한 분석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지만 네트워크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참여자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분석에 한계가 있는가 하면 계량통계분석으로 인하여 지역고유의 연대의 실상이 고찰 대상에서 간과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사회적 경제 유사 사업간 연계 강화, 지역 업종간 교류 증진 및 지역 파트너십 강화 등이 주요 정책 방향으로 발표된 바 있다(사회적 기업 2차(2013-2017년) 육성 기본 계획). 이에 앞서 지역사회 현장에서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적극적으로 지역적 연대에 참여하면서 실질적 효과를 거두는 선진적 사례가 있었다. 즉 장기실업, 장애, 경력단절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배제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내는 다양한 노력이 기울어져 온 과정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기존 통계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지역 네트워크에 대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구체적 참여 사례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질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지역 네트워크는 거슬러 올라가면 에밀 뒤르켐이 제시한 유기적 연대까지 부연할 수 있는 개념이다. 즉 내부적 자발성에 의하여 확립되는 분업에 의하여 개인적 능력과 사회적 기능의 조화가 이루어지고 경쟁조건의 외부적 불평등이 점차 없어지게 된다는 이론으로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개인 내지 기관이 그 상호간의 차이를 서로 도덕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역 네트워크가 지향하는 바와 상통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사회적 기업 인증제도(특히 3년간의 정부 지원 종료 후 그 변화를 추적하는 시스템 부재)로 인한 사회적 기업의 고립 내지 한계를 타개하기 위하여 지역 네트워크의 발전이 모색되고 있다. 실제적으로 사회적 기업 간 나아가 사회적 경제조직 및 시민단체 간의 자발적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삶과환경, 2015).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비교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 지역 네트워크의 사례로 '청주 자원순환 포럼'과 '충북 로컬푸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선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검토

1. 사회적 경제 개념과 특성

사회적 경제의 실태는 유럽, 미국 및 아시아에서 다소 다른 양상을 띠고 발전해 왔다. 즉, 유럽에서는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 성립과 궤를 같이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의 역사, 미국에서는 건국 당시의 다양한 사회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발전된 비영리 조직의 역사,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체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기존 사회운동과 획을 그어 체제 내와 체제 외의 중간적 위치에서 지역사회의 과제 해결을 위한 주체가 발전해 왔다는 차이가 있다.

한국의 경우 IMF 외환위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고용 없는 저성장, 맞벌이 가정 증가에 수반한 사회 서비스 수요 증가 등이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상징되는 사회적 경제 관련 제반 활동 및 제도 구축에 박차를 가하였다[1]. 새로운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기본법에 의거한 협동조합 등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Roger 외(2001)에 의하면 사회적 경제는 법적·제도적 차원과 규범적 차원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규정된다. 법적·제도적 차원에서는 협동조합, 상호공제조합, 민간 결사체라는 법적 지위로 규정이 가능하다. 이 법적 지위는 다수 국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보편적인 개념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경영의 자율성, 민주적 의사

---

1) 한편 일본의 경우 20세기 말 자연재해 피해지역에서 활약한 자원봉사자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이 민간 비영리 조직 활성화의 계기가 되었다.

결정 과정[2], 수익배분에 있어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한다[3]'는 4 가지 원칙이 제시된다.

OECD(1999)는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 및 판매, 높은 수준의 자율성 및 참여와 탈퇴권한 보유, 구성원들의 노력에 의한 재정적 실효성 결정, 최소한의 임금노동자 고용 등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는 동시에 시민들의 주도권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참여자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운영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요약하면 사회적 경제는 국가와 시장에 의하여 대응하기 어려운 지역사회 과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일의 조직 활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목적을 공유하고 역할을 조정하는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특성이야말로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기본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2.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유형과 주체 구성요소

네트워크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고유한 개념이 아니라 일정한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집단적 행동에 공통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네트워크라는 개념만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참여의 파급효과의 특징을 분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구성요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사회운동, NGO, 거버넌스 및 사회적 경제에 관한 이론을 다음과 같이 참조하였다.

우선 사회운동에 관한 이론으로 권력에 의한 사회운동[4], 반권력적 사회운동, 중간적 형태의 사회운동이라는 세 가지 사회운동의 유형이 제시되는 가운데 중간적 운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5]. 사회운동의 구성요소는 ①목표, ②주체, ③조직, ④조직규율 및 ⑤성과가 있다[6].

구체적으로 한국 NGO 연구동향을 분석한 권해수(2013)는 그 연구의 범위가 관변운동으로부터 시위, 집단해동, 시민운동, 시민단체로 확장되어 왔으며 비영리 단체 및 자원봉사의 영역으

---

2) 민주적 의사결정이란 참여자의 자본비율에 따라 의사결정의 영향력이 달라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3) 이익 극대화라는 기준으로 이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기준으로 이익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4) 사회운동이란 결사라는 형태를 취하고 일정한 목표를 가지며 그중에 지도자가 있고 조직으로서의 통일적 행동과 규율에 의하여 통솔되며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사회 개선이나 혁신을 위하여 행동하는 운동으로 정의된다. 이는 특정한 사회체제, 구조에 고유한 것으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즉, 사회운동은 개인들의 제(諸)요구에 의거하여 자발적 또는 의도적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조직적 활동이며 일정한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속적 방법(이는 활동 과정에서 항상 혁신됨)을 갖고 있다(帯刀, 2005).

5) 사회운동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발전과 네트워크 상호작용의 내실을 확인할 필요성이 있고 사회운동의 본질적 의미는 집합적 행동이라는 관점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北川, 1958)

6) 사회적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현황과 과제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회적, 문화적 환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사회와 주민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帯刀, 2005).

로 넓혀 왔음을 지적하면서 한국 고유의 NGO 및 시민단체의 발전과정을 분석하는 질적 연구의 심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①정부-NGO 관계 및 정책과정 상의 역할, ②외국 비교 연구, ③다양한 대상영역의 활동, ④정부-NGO 관계뿐만 아닌 기업-NGO 관계, ⑤국제 및 지방 NGO 연구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 등 영역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강제상 외(2014)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 간의 자발적 파트너십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민참여 거버넌스(governance)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참여, 투명성, 소통 및 효율성이라는 네 가지 분석기준을 설정한 다음, 정책과정 초기단계, 추진단계 및 완료단계라는 시기별로 조사 사례에 접근하였다[7]. 그 결과 협력 네트워크에 있어 실제적 의견수렴과 피드백의 강화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그리고 참여라는 개념에 주목하면 일찍이 Arnstein(1969)은 시민참여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비참여(계도/교정단계), 형식적 참여(정보제공/의견수렴/유화단계), 실질적 참여(동반자/권한위임/시민통제 단계)로 크게 3분류하고 이를 다시 8단계로 세분화하였다(정정화 외, 2014).

나아가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조직의 특성과 접목된 파급효과 분석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Defourny(2009)에 따르면 사회적 경제조직은 실업, 빈곤, 낙후지역 그리고 사회적 배제와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 목적을 두고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로서 특히 서유럽에서는 정부 및 민간 시장을 통하여 경제적 자원이 동원되고 있다.

Rory 외(2011)는 사회적 성과에 대한 관점으로 생산고(output)가 아니라 성과(outcome)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SAA(Social Accounting and Audit, 사회회계감사)와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사회적 투자 이익률)의 두 가지 측정방법을 비교하였다. 전자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이해 관계자들의 관심을 제고하는 데 활용 가능한 회계감사라는 특징이 있는 한편 후자는 투자가가 사회적 경제조직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데 활용된다. 이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적 개념은 이해 관계자 관여, 범위와 자료, 변화에 대한 이해, 비교, 투명성, 검증 및 사회적 경제조직 경영 적용성이다.

그리고 신명호(2009)는 사회적 경제의 호혜적 측면에 주목하고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지면서 화폐적, 비화폐적 자원을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조직들로 구성되는 경제적 영역의 형성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帯刀(2014)는 사회조직의 상호작용에 있어 인간 상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환경행동과 거주환경과의 관련에 의거하여 과제를 인식하고 지역사회를 형성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즉,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동이 어디서 누구와 함께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환경의 질적 차이와 공간적 인식 차이를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7) OECD(2001)는 정부와 시민 간 의사소통방식, 의사소통방식의 결정주체, 참여자의 의사결정권한 소유여부 등을 기준으로 하였다.

〈표 1〉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유형화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유형화 기준
강제상(2014)	시민참여 거버넌스의 참여, 투명성, 소통 및 효율성
권해수(2013)	관변운동, 시위, 집단행동, 시민운동, 시민단체 등
帯刀(2005)	목표, 주체, 조직, 조직규율 및 성과
Arnstein(1969)	비참여, 형식적 참여, 실적적 참여
北川(1958)	권력, 반권력 및 그 중간형태

3.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파급효과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파급효과에 관한 선행연구는 주로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미리 요약해 두면 네트워크 참여의 파급효과로서 신뢰관계 형성, 경제적 조건 개선 및 지역 순환경제 구축 등이 제시되고 이를 통한 지속 가능성 제고가 거론되어 왔다.

지역에 기반을 둔 사회적 기업이 지역 내 네트워크를 활용함으로써 지역자원이 동원된다는 점에 주목한 김종수(2009)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형성된 사회적 자본과 신뢰관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밝혔다. 또한 네트워크가 가진 경제적 측면에 착목한 김성기(2010)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다중 이해당사자의 참여에 의하여 규모의 경제 발휘, 자본금 확충 그리고 공공정책과 시장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됨을 지적하였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역자원을 상호 활용하여 지역적 순환경제가 일정 수준 작동되면서 사업체별 위험관리도 가능하게 된다는 신경희(2010)의 보고 역시 같은 맥락으로 파악된다.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개별 협동조합, 특정분야의 협동조합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김성훈: 2012).

한편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선행연구는 통계적 계량분석을 실시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자원봉사 조직의 네트워크 특성과 조직 효과성이라는 두 가지 요소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최유미(2008)는 자원봉사 조직의 지역, 조직 및 기관장 특성이 네트워크의 구조적, 상호작용적 및 기능적 특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여 지역특성 및 네트워크에 대한 관심 고조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성복지 조직 네트워크의 중심성과 그 요인 및 조직효과에 대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분석한 장연진(2010), 나아가 네트워크 이론을 사회적 기업에 접목시켜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특성과 조직성과를 분석한 이재희(2015) 등 최근의 연구까지 계량적 방법으로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표 2〉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파급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파급효과
김종수(2009)	사회적 자본과 신뢰관계 형성
김성기(2010)	규모의 경제 발휘, 자본금 확충, 공공정책과 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능동성
신경희(2010)	지역적 순환경제 작동, 사업체별 위험관리
최유미(2008)	네트워크의 구조적 상호작용적 및 기능적 특성에 영향
장연진(2010)	사회적기업 간 네트워크 특성과 조직성과

이처럼 기존 연구들은 네트워크의 특성과 형성과정 그리고 효과에 주목하여 다양한 지표를 도입함으로써 그 실상을 분석하였다는 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단, 기존 연구에 대하여 두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즉,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 접근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개별적 주체의 특성이 간과된 만큼 그 실상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 한 가지는 통계적 방법으로 계량화될 수 없는 지역 특성이나 실제적 파급효과가 분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네트워크 참여의 개별적 실태에 대한 접근이 필요한 동시에 그 파급효과에 대한 질적 분석이 필요하다[8]. 이에 본 연구는 지역적 네트워크 참여를 질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파급효과는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나눌 수 있고 전자는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사회 서비스 전달, 낙후지역 발전, 환경적 활동 및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관계망으로 세분화할 수 있으며 후자는 정부(정부조달)와 민간시장 및 호혜자원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고 연구의 분석 틀을 도출하였다.

4. 연구의 분석 틀

본 연구는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지역 네트워크와 참여주체의 구성요소를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세부항목으로 지역 네트워크 조직의 개요, 참여주체 및 참여 목적에 대하여 질적으로 접근하였다.

8) 그동안 통계적 방법으로 인하여 가려져 왔던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필요성은 이미 김영미(2007: 3-4)에 의하여 지적된 바 있다.

〈표 3〉 지역 네트워크와 참여 주체의 분석 항목

구분	세부항목	분석내용
지역 네트워크와 참여 주체의 구성 요소	지역 네트워크 조직	지역 네트워크 개요
	참여 주체	참여 주체 개요
	참여 목적	제도적·비제도적 동기

다음으로 참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를 경제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나누어 재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 사회적 측면은 김종수(2009), 장연진(2010) 등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취약계층 노동통합, 사회 서비스 전달, 낙후지역 발전, 친환경적 활동 및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관계망 회복으로 설정하였고 경제적 측면은 김성기(2010), 신경희(2010)의 분석 내용을 종합하여 정부조달, 호혜자원 및 민간시장으로 설정하였다.

〈표 4〉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틀

구분	세부항목	개별적 활동에 의한 효과	지역 네트워크 참여에 의한 파급효과
사회적 측면	취약계층의 노동통합	일자리 증감	일자리 증감
	사회 서비스 전달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 서비스 제공 실적
	낙후지역 발전	낙후지역 대응 활동	낙후지역 대응 활동
	친환경적 활동	환경적 기여 활동	환경적 기여 활동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관계망 회복	사회관계망 회복 활동	사회관계망 회복 활동
경제적 측면	정부조달	자원 동원 현황 및 특성	자원 동원 현황 및 특성
	호혜자원		
	민간시장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파급효과는 개별적 활동에 의한 효과와 지역 네트워크 참여에 의한 파급효과로 나누어 개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로 하였다. 다시 말하여 사회적 측면, 경제적 측면의 각 세부항목에 제시된 효과가 지역 네트워크 참여에 의하여 나타난 것인지 참여와 상관없이 나타난 것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의 선정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해석주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인터뷰를 추진하였기 때문에 조사 대상이 적을 수 있으며 지역적 범위는 충청북도 지역으로 선정하였다는 한정성을 지닌다.

1) 사례 선정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파급효과를 밝히기 위하여 2 가지 지역 네트워크와 이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대표적 2 가지 사례 및 각각 동일 분야에서 참여하지 않는 2 가지 사례의 총 4 가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우선 지역 네트워크로서 '청주 자원순환 포럼'과 '충북 로컬푸드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 근거는 다수 존재하는 네트워크[9] 중 가장 활발한 활동과 일정 정도의 확실한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사 결과에서 정리하였다.

그리고 전자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 M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후자에 참여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 A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자원순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도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 T사를, 로컬푸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도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로서 사회적 기업 H사를 선정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4 가지 참여 주체의 공통점은 자활사업에서 시작되었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되었으며 5년 이상의 활동 경험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4개의 참여 주체 모두 주식회사라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표 5〉 조사대상 선정

활동분야	지역 네트워크	참여 주체 (사회적 기업)	참여주체 비고	인터뷰 대상자
자원순환	청주 자원순환 포럼	M사	2004년 자활공동체로 시작	참여자 1(경영위원, 2005-2007; 이사, 2007-2009) 참여자 2(이사, 2005)
	없음	T사	2006년 자활공동체로 시작	참여자 5(대표, 현재)
로컬푸드	충북 로컬푸드 네트워크	A사	2008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	참여자 3(대표, 2008-2013) 참여자 4(대표, 2013-현재)
	없음	H사	2009년 사업 시작	참여자 6(대표, 현재)

9) 2014년 말 기준 충북 지역에는 500여 개 사회적 경제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네트워크 조직으로 '충북 사회적 기업 협의회', '충북지역 자활센터 협회', '충북 마을기업 협의회', '한국 시니어 클럽 충북지회', '충북 사회적 경제 협의회', '사회적 기업 활성화 충북 네트워크' 등 당사자조직 및 지원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외에 구체적 지역과제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지역 네트워크로서 '청주 자원순환 포럼'과 '충북 로컬푸드 네트워크'가 있다.

2. 조사방법

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지역 네트워크 참여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설로 하여금 앞서 〈표 4〉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거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대상자는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조직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2014년 7월부터 10월까지 기간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하여 실시되었다.

2) 조사방법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선택하고 인터뷰를 통함으로써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파급효과에 대하여 개별적·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지역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조직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Ⅳ. 조사 결과

1. 청주 자원순환 포럼

1) 지역 네트워크와 참여 주체

(1) 청주 자원순환 포럼 개요

청주 자원순환 포럼은 2006년 청주충북 환경운동연합 등 13개 참여 단위가 모여 임의조직으로 결성되었다. 자원순환 도시 형성을 목적으로 청주지역 자원순환 시스템에 대한 현황과 정책 모니터링을 통하여 다양한 정책 제안과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매월 정기회의를 통하여 지역 현안을 논의하는 한편, 시민 교육과 토론회도 진행하고 있다.

(2) M사 개요

참여 주체인 M사는 2004년 청원지역자활센터의 자활공동체로 시작되어 플라스틱 전문 재활용 사업체로 자리 잡았다. 2006년 청주 자원순환 포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시기는 청원지역자활센터와 일하는공동체 실업극복연대의 실무적인 지원[10]이

---

[10] M사는 청원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 사업단으로 시작되었다. 2004년 자활공동체를 설립하여 운영하

다양한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리고 2007년 노동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다[11].

그러나 사업이 안정화 단계에 들어서던 2008년에 일어난 예상치 못한 경제위기는 재활용시장의 침체를 불러왔다. 납품단가의 하락과 재고물량의 증가로 M사 매출은 급격하게 떨어졌다. 당시 경영진은 시장 환경의 악화에 대응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와 신규 사업 모색을 통하여 돌파구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 하락에 영향을 받은 시장 환경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시장 악화로 인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그동안 추진하던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참여주민 삶의 질 개선, 민주적 운영 등의 실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었다.

사회적 기업의 운영 전략 변경은 사회적 기업을 통하여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자 했던 핵심적 활동가들의 이탈로 이어졌다. 또한 일련의 과정에서 모법인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지역 네트워크 활동도 중단되었다. 최근에야 지역 네트워크 활동에 다시 참여하면서 지역 내의 역할을 다시 모색하고 있다.

> 참여자 1: 사업 초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많은 것을 상상하곤 했어요. 노동자가 소유한 회사를 구상하고 민주적이고 책임감 있는 운영구조를 갖추기 위해 노동자 평의회를 준비하기도 했어요. 실제로 매주 간부회의와 매월 전체회의를 통해 회사의 운영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열심히 진행했지요. 지역에서는 동사무소와 연계해 동네에서 파지 줍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재활용 교환소를 시범운영하기도 하고 주민환경교육, 선진지 견학도 하면서 자원순환 도시에 대한 미래상을 잡아가고 있었지요. 지역의 영세 고물상과의 상생방안을 연구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런 활동들을 유보하고 생산성만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같이 일하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위와 같은 과정에 대하여 본 연구는 M사가 지역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기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3) 지역 네트워크 참여 목적

청주 자원순환 포럼에 대한 참여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는 시기부터 제도화를 통한 양적 확대의 전단계로 비공식적이고 비정기적인 협력관계를 상당기간 유지하는 과정에서

던 중 2006년 일하는공동체 실업극복연대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공동사업을 진행하였다. 이에 의하여 M사는 청원지역자활센터의 지원과 실업극복협의회의 지원을 동시에 받게 되었다.

11) M사는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기 전부터 청주 자원순환 포럼이라는 새로운 지역 네트워크 조직화에 기여하였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단, 넓은 의미에서 사회적 경제조직으로서 M사는 그 태동기부터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해 온 것이다.

추진되었다.

> 참여자 2: 재활용 사회적 기업을 만들고 얼마 되지 않아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설명해도 동네 고물상으로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을 하려면 아파트 부녀회도 만나고 시청 청소과 담당자와도 원활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전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없더라고요. 이런 식으로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겠구나 생각했지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 다녔어요. 환경운동 연합이나 지역의제는 전부터 알던 사이라서 이야기가 쉽게 통했지요. 가끔은 우리가 도움을 줄 일도 있고 해서 만나는 횟수가 빈번해졌어요.

지역 네트워크의 각 주체들은 개별 활동에서 오는 인적, 물적, 정책적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네트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미 지역사회에서 잘 알고 지내던 관계로 시작되었다. 서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구체적 목적을 공유하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청주 자원순환 포럼은 지역 재활용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참여조직들은 지역 재활용 배출, 처리 상황과 정책 모니터링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실천적 활동을 목적으로 활동하였다.

2)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파급효과

(1) 사회적 측면

창업당시 M사는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지속 가능한 일자리 유지에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던 근로취약계층이 80% 정도로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는 시기에 맞춰 대규모 인원 축소를 경험하게 되었다. 이후 고용인원이 차츰 증가하였지만 취약계층 고용비율은 30% 정도로 초기에 비하여 낮게 유지되고 있다.

사업 초기인 2004년에는 청주시의 아파트마다 폐플라스틱 마대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플라스틱 재활용품이 한 달에 1, 2회 정도 주기로 수거되면서 단지 내 미관과 악취의 문제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주 주기적인 수거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업 중기 지역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환경적 기여활동은 주목할 만하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청주 자원순환 포럼 회원들과 쓰레기 성상조사를 통하여 아파트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실태를 확인하는 활동이 이루어졌다. 조사를 통하여 도출된 결과는 행정 당사자인 청주시 청소행정과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청소행정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안

을 제안하는 활동으로 이어졌다.

주민들의 재활용 의식 개선을 위한 분리배출 지침 개선을 제안하였고 문제점으로 도출된 비닐류 재활용품의 활용방안을 조사하였으며 청주시에 제안하는 활동도 진행되었다. 2012년부터 의무화된 폐(廢)소형 가전제품의 자원화[12]도 2007년에 이미 청주 자원순환 포럼을 통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이 모색되고 있었다. M사가 중심이 되어 폐(廢)소형 가전제품 전문 재활용기업[13]을 육성했던 것이다. 그 외에도 재활용시설에 대한 견학과 주민환경교육이 왕성하게 진행되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적 관계망 회복에 있어 지역 네트워크인 청주 자원순환 포럼 참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당시 자원순환포럼 회의 내용은 자원순환에 머물지 않고 다양한 주제로 확산되었다. M사 실무자는 참여주민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포럼 회원들은 개인은 물론 각자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동원하였으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인 도움을 주었다.

> 참여자 1: 당시에는 모든 게 처음이었어요. 어디 가서 보고 배울 곳이 없었지요. 사업초기에 저희는 많은 꿈을 꾸었어요.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참여주민의 노동권이 보장되면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기업을 꿈꾸었지요. 그런데 현실은 참 곤란한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면 참여주민들에게 삶의 고단함을 해결할 만큼의 넉넉한 급여를 주는 데 한계를 느꼈지요. 3년 정도 운영하니까 전반적인 수익성을 예상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로는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없는 거에요. 고민 끝에 돈을 충분히 드릴 수 없다면 이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활동을 하자고 생각했지요. 취약계층 주민들이 가정에서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역의 자원을 연결해서 해결해 보기로 결정한 거에요. 이런 고민을 네트워크 회의에서 이야기하면 회의 주제와 상관없이 많은 정보를 얻게 되더라고요. 직접 기관을 소개 받기도 하고 저의 고민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주곤 했어요.

사회적 관계망을 통하여 참여주민 가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는 고민으로 지역자원과의 연계사업을 벌이게 되었다. 참여주민의 가정은 단순히 적은 수입이 아니라 그 가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취약계층 참여주민 가정의 문제로 알코올 중독 남편, 장애 아동, 배우자의 장기실업 등으로 인하여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알코올 중독 남

---

12) 폐(廢)소형 가전제품 재활용정책이 2012년 환경부 지침에 의하여 의무 시행되면서 청주시는 가정에서 배출된 소형 가전제품의 수거와 재활용 처리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

13) M사는 소형 가전제품 재활용 전문처리 기업을 설립하고 가정에서 수거된 폐(廢)소형 가전제품과 S사와의 협약을 통하여 S사 물류센터로부터 수거된 폐(廢)소형 가전제품의 재활용 사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재활용 사회적 기업들이 전국적으로 결성한 재활용 대안기업 연합회가 S사와의 협력에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후 서울시에서는 폐(廢)소형 가전을 전문으로 처리하는 사회적 기업을 재활용 대안기업 연합회와 서울시 및 K사 협력으로 설립 운영하고 있다.

편을 상담센터에 안내하고 장애 아동을 복지사업에 연계하는 한편 지역의 대학생 봉사자로 하여금 참여주민 자녀의 학습을 지도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청주 자원순환 포럼을 통하여 파급되어 이루어진 활동이었다.

또한 생활폐기물 수집과 운반 대행업체 평가를 위한 위원회를 청주시 조례에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주 자원순환 포럼 회의에서 이를 청주 자원순환 포럼을 고려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의 역할 중 재활용 선별장에 대한 평가도 포함하는 방안이 제안되었다[14].

(2) 경제적 측면

M사는 2007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된 이후 2008년부터 3년간 인건비 지원을 받아 왔다. 인건비 이외에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업 개발비와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공공영역에서 조달되는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M사는 지자체 청소행정과 재활용 사회적 기업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과 환경'[15]의 사례를 모범으로 하였으나 사회적 기업에 우호적이지 않은 분위기로 인하여 지자체 청소행정 위탁업무는 뚜렷한 성과를 만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참여하였던 청주 자원순환 포럼을 통하여 환경단체와 비영리 조직 및 주민들에게 사회적 기업이 공익적 조직이라는 공신력을 갖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비록 지자체 위탁사업을 받지는 못했지만 청주시 재활용 선별장 주변지역 주민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선별장 운영을 구상하고 환경단체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등 다양한 지지와 협력이 이루어진 것이다[16].

---

14) 이는 조례개정 사항이므로 추후 청주시 폐기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큰 틀에서 개정이 필요하면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다.

15) '사람과 환경'은 전주 덕진 자활의 자활공동체로 시작하여 전주시의 생활계 플라스틱을 전문적으로 재활용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2008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어 전주시 재활용품 수거와 처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운영하고 있다. 2014년 기준 고용인원 80명, 연매출 60억 원의 안정적인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의 환경운동, 주민교육 및 신규 사회적 기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16) 청주 자원순환 포럼은 2008년 활동 중단 상태에 들어간 후 2013년에 새로운 형식으로 복원되었다. 즉 과거에는 민간 조직들로 구성된 포럼이었지만 2013년부터는 지자체 환경정책과가 참여하는 민관 거버넌스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주요 역할은 자원순환을 위한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정기 포럼을 개최하고 관련 정책과제를 수립하는 것을 비롯하여 지자체 자원순환 정책과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이 주어졌다. 특히 자원순환을 통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가 주요한 역할 중 하나로 제안되었다(삶과환경, 2015).

〈표 6〉 M사의 개별적 활동 및 지역 네트워크 참여에 의한 효과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개별적 활동에 의한 효과</th><th>지역 네트워크 참여에 의한 파급효과</th></tr>
<tr><td rowspan="5">사회적 측면</td><td>취약계층 노동통합</td><td><table><tr><th>구분</th><th>2007</th><th>2008</th><th>2009</th><th>2010</th><th>2011</th><th>2012</th><th>2013</th></tr><tr><td>일반</td><td>5</td><td>6</td><td>9</td><td>7</td><td>10</td><td>15</td><td>20</td></tr><tr><td>취약계층</td><td>30</td><td>28</td><td>25</td><td>23</td><td>5</td><td>8</td><td>10</td></tr><tr><td>계</td><td>35</td><td>34</td><td>34</td><td>30</td><td>15</td><td>23</td><td>30</td></tr></table></td><td></td></tr>
<tr><td>사회 서비스 전달</td><td>- 아파트 재활용품 주간단위 수거</td><td>-</td></tr>
<tr><td>낙후지역 발전</td><td>- 특이사항 없음</td><td>-</td></tr>
<tr><td>환경적 기여활동</td><td>-</td><td>- 지역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현황 진단과 대안 모색활동
- 소형가전 처리 전문기업 설립
- 환경교육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td></tr>
<tr><td>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 관계망 회복</td><td>-</td><td>- 취약계층 참여주민의 삶의 조건 개선 활동(교육, 복지, 의료)
- 2차 자원발굴을 통한 자원 동원</td></tr>
<tr><td rowspan="3">경제적 측면</td><td>정부조달</td><td>- 인건비 3년간 지원(7억 원)
- 사업개발비/컨설팅</td><td>- 지자체 선별장 위탁 추진(지역주민, 환경단체의 지지 견인)</td></tr>
<tr><td>호혜자원</td><td>- 사회적 기업들의 재활용품 제공
- 광역 지자체에서 재활용품 관리 요청
- 학교 폐(廢)컴퓨터 수거 용역
- S사 협력</td><td>-</td></tr>
<tr><td>민간시장</td><td>- 연간 6,000톤 아파트 재활용품 처리
- 소규모 재활용사업체 협력
- M사를 중심으로 고물상 연합회 구성
- 동종업종과 긴장관계 유지</td><td>-</td></tr>
</table>

M사는 2013년 연간 매출이 23억 원에 이르렀다. 주요 매출을 분석해 보면 플라스틱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매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원자재 수급과 제품의 판매 가격이다. 원자재는 청주시 관내 아파트의 70%에 대한 수거를 진행하고 있다. 연간 6,000톤에 해당하는 양이다. 안정적인 사업 물량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판매가격의 하락이 경영환경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친다. 판매 가격은 2008년 3/4분기까지는 호황을 누리다가 4/4분기부터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절반에 가까운 단가의 하락을 불러왔다. 이후로도 다소의 등락이 반복되었지만 이 시기부터 현재까지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M사의 호혜자원으로 관내 사회적 기업, 관공서, 교육청 및 대기업 등이 있다. 호혜자원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높지는 않지만 비교적 안정적인 시장이 확보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하다. 그동안 성과는 교육청 폐(廢)컴퓨터 수거, 충북도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 처리 위탁, 사회적 기업의 재활용품 제공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S사와의 폐(廢)소형 가전 처리협력은 장기적 전략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민간시장에서는 관내 고물상 30여 곳과 전략적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플라스틱은 부피가 크고 무게가 적은 특성이 있는데 이로 인하여 대규모 부지와 선별 및 압축공정이 필수적이다. 소규모 재활용 업체로서는 부담스러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통하여 상생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종 경쟁 업체와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3) 자원순환 분야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

(1) T사 개요

T사는 재활용 시장의 불안한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이 유지되고 있는 재활용 사회적 기업이다. 이는 시장경쟁이 적은 충주라는 특성에서 기인한다. 충주는 생활계 플라스틱 경쟁사업체가 없는 상황에서 원재료 조달비용이 현저하게 적게 들고 있다. 따라서 사업의 수익성을 높게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안정적인 여건을 기반으로 초기부터 현재까지 고용 인력은 약간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2) 개별적 활동에 의한 효과의 사회적 측면

사회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원활한 수거 서비스 제공 이외에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환경적 기여활동은 자원 재활용 비율이 높은 특징이 있다.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세심한 선별이 가능하고, 충주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책이 안착되어 재활용품 내 이물질이 적은 것도 주요한 요인이다. 소형 가전제품은 수거와 선별과정을 거쳐 M사를 통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기타 전반적인 사업내용은 M사와 유사하다.

자활 공동체로서 지역자활센터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충주시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이나 의료 및 교육기관등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관계망 회복활동은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3) 개별적 활동에 의한 효과의 경제적 측면

T사의 정부조달 자원으로는 2008년 인증 이후 3년간 인건비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사업개발비 지원과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사업역량을 강화해 왔다. 현재는 정부지원 없이 독립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호적인 지역자원이 부족하다. 특히 환경과 관련한 단체가 적어 사업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M사가 모기관의 지원과 지역 네트워크의 힘으로 여러 자원이 동원되었던 데 비하여 T사가 동원하는 지역 자원은 대표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대표의 역량에 따라 관계가 좌우되고 있다.

참여자 5: 할 일은 많은데 같이 고민할 사람이 없어요. 물론 우리 직원들이 맡은 일은 성실히 하시죠. 문제는 기업을 운영한다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내부에서 사고가 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수습하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제안서를 쓰거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도 아직까지 제가 하고 있어요. 사실 기업이 발전하려면 새로운 사업구상도 해야 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어요. 또 우리 사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지역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해요. 충주시의 재활용 선별장 위탁운영은 중요한 사업목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T사 역시 충주시 재활용 선별장의 위탁운영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우호적인 협력단위의 부재는 지역에서 공신력을 갖는 데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충주에 위치한 수자원공사는 충주호에서 수거한 플라스틱 부유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도로공사에서도 고속도로 휴게소의 재활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의 공기업이 사회적 기업과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이다.

T사는 충주시의 아파트 95%를 처리하고 있지만 최근 경쟁업체의 등장으로 그동안 누렸던 독점적 지위가 위협받고 있다. 경쟁이 본격화되면 매입원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4) 자원순환 분야 지역 네트워크 참여/비참여 비교

청주 자원순환 포럼 사례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과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다섯 가지 항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에 있어 사례 기업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M사의 경우 정부지원의 종료에 따라 고용 인력이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한 반면, T사는 지원종료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경영전략과 시장 환경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 네트워크 참여와는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둘째, 사회 서비스 전달에서 두 조직은 아파트 재활용품의 정기적인 수거라는 같은 내용의 재활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참여와는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 추가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셋째, 낙후지역 발전에 대한 활동은 두 조직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환경적 기여활동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T사가 재활용 분리배출 시스템이 잘 정비된 충주지역의 여건과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특성에 의하여 수거된 재활용품의 재활용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적 특성이면서 기업의 규모와 관련된 것으로 지역 네트

워크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다. 한편 M사는 청주 자원순환 포럼과 함께 지역의 자원순환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대안을 모색하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청주 자원순환 포럼이라는 지역 네트워크를 통하여 더욱 왕성한 활동을 견인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관계망 회복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T사가 이렇다 할 연계자원을 확보하지 못한 한편 M사는 참여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에서 청주 자원순환 포럼을 통하여 2차적 지역 관계망을 확보하고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원순환 분야 지역 네트워크 논의를 종합해 보면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환경적 기여활동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관계망 형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다양한 자원동원이 비교적 원활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지역 네트워크 참여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지역 네트워크 참여가 갖는 장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 재활용 사회적 기업은 지역 재활용 시스템의 공공성을 유지하고 자원순환 사회를 위한 실천지점에 역할이 있다.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데 지자체 청소행정업무의 위탁은 상당한 유용성을 갖는다[17]. 본 연구에서 두 사례는 핵심 사업 전략으로 지자체 청소행정 위탁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의 협력적 논의 테이블을 구성하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논의하는 공식적인 미팅이 정기적으로 진행된다는 점과 위탁업무를 위한 다양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청주 자원순환 포럼에 참여는 M사가 T사에 비하여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호혜자원의 경우 사회적 기업에 우호적인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네트워크 참여가 영향을 미친 것은 확인할 수 없었다.

민간시장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내용이 확인되었으나 네트워크 참여를 통한 특이사항을 발견하기 어렵다.

2. 충북 로컬푸드 네트워크

1) 지역 네트워크와 참여 주체

(1) 충북 로컬푸드 네트워크 개요

충북 로컬푸드 네트워크는 2008년에 청원군 논민회 등 17개 참여 단위가 모여 결성된 임의

---

17) 전주의 사회적 기업 '(주)사람과 환경'의 경우 전주시 재활용품의 수집운반 및 선별장 운영을 위탁받으면서 사업의 안정성과 지역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사례를 만든 바 있다.

조직이다. 충북지역 로컬푸드(근거리 도·농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농민장터, 정책 제안 및 실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회원은 매월 정기 회의를 통하여 각 단체별 현황을 공유하고 지역 상황을 점검한다.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대하여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민장터와 로컬푸드 관련 토론회 등을 전개하고 있다.

(2) A사 개요

참여 주체인 A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제조를 통하여 한부모 가정 및 결혼 이주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건강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8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시작하였고 2008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었다.

식품 안전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환경과 생명을 살리는 먹을거리 문화를 형성하고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면서 도·농간 연대와 협동의 가치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재료와 지역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먹을거리 공공성과 먹을거리 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 여성 일자리 창출과 노동권 보장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생산되는 식품으로 우리밀 빵과 콩, 친환경 야채로 만든 버거, 콩비지가 들어간 우리밀 머핀과 쿠키 등이 있으며 어린이집 간식 납품 그 외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3) 지역 네트워크 참여 목적

지역 순환경제를 만들기 위한 거래 관계를 지향하는 A사는 충북 로컬푸드 네트워크를 통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자원을 동원함에 있어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다.

> 참여자 4: 로컬푸드를 실천하고 싶어도 지역 농민들을 발굴하는 일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런 활동에 관심 있는 농민을 찾고 사업을 설명하고 거래관계를 만드는 일은 시간도 많이 들고 대부분 성과가 크지 않아요. 개별 기업으로서는 어려운 문제지요. 하지만 로컬푸드 네트워크에서는 각자의 정보를 교환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에서 새로운 농민을 찾는 데 로컬푸드 네트워크 참여는 유용한 점이 있지요.

2)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파급효과

(1) 사회적 측면

A사는 사업초기 15명이던 인원이 2014년 말 7명으로 감소하였다. 감소한 이유는 초기 계획에 비하여 매출증가와 생산성의 향상이 더디게 증가한 데에 있다. 사회적 기업 인건비 지원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사업 규모에 맞는 인원으로 최적화된 것이다.

A사는 사회 서비스 제공에서 업종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지역아동센터, 장애직업 재활시설, 여성 장애인 단체,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그룹홈 등에 정기적으로 간식을 후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경영의 어려움이 있던 시기에도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한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교육과 기후변화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여 로컬푸드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교육활동은 2014년에 활성화 되었다. 충북 로컬푸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녹색청주 협의회에서 교육사업 비용을 지원받아 왕성한 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육은 환경의식이 있는 학부모와 학생 등 소비자와 직접 연계하는 접점을 만들고 있다.

환경적 기여활동으로는 로컬푸드 실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A사는 지역 농산물 구매 비율이 약 80%에 달한다. 이 중 50%는 인근 농가와 직거래를 통하여 조달되고 있다. 사업 초기에 버거에 필요한 빵은 순천에서 생산된 우리밀 빵을 이용하였지만 최근에는 가급적 가까운 거리의 농산물을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옥천 장애인 작업장과 협력을 맺고 지역의 밀을 이용한 버거용 빵을 주문해 공급받고 있다.

매장에는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에너지 카페를 만들어 소비자의 환경의식 제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모법인과 연계하여 친환경 세제 공급과 확산 활동에도 노력하고 있다.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관계망 회복을 위한 활동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표적으로 청주지역 의료생협과 협력을 통한 참여노동자 의료지원, 영어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노동자 자녀의 영어교육 지원, 사회적 경제 공제조합 참여를 통한 사회적 관계 확대와 안전망 확대를 진행하였다.

그 외에도 지역 내 다문화 센터와 연계를 통하여 다문화 여성에 대한 지원 및 모법인과 연계한 김장지원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참여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관계망 회복을 위한 활동에서 충북 로컬푸드 네트워크는 2차적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자원동원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참여자 3: A사는 로컬푸드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일들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로컬푸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는 의료생협 조합원이거나 영어교육기관의 이사도 있었고 사회적 경제 공제조합 조합원도 있었어요. 이 분들이 적극적으로 본인의 일과 우리 회사를 연계하자고 제안했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수월하게 지역과 연계 고리가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2) 경제적 측면

A사는 2013년 연간 매출이 2.5억 원, 2014년에는 3억 원(예상)에 이른다. 주요 매출처로 간식을 납품하는 어린이집이 50%를 차지하고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한 판매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7〉 A사의 개별적 활동 및 지역 네트워크 참여에 의한 효과

<table>
<tr><th colspan="2">구 분</th><th>개별적 활동에 의한 효과</th><th>지역 네트워크 참여에 의한 파급효과</th></tr>
<tr><td rowspan="6">사회적 측면</td><td>취약계층 노동통합</td><td><table><tr><th>구분</th><th>2007</th><th>2008</th><th>2009</th><th>2010</th><th>2011</th><th>2012</th><th>2013</th></tr><tr><td>일반</td><td>6</td><td>6</td><td>7</td><td>6</td><td>5</td><td>4</td><td>4</td></tr><tr><td>취약계층</td><td>9</td><td>9</td><td>10</td><td>8</td><td>7</td><td>5</td><td>3</td></tr><tr><td>계</td><td>15</td><td>15</td><td>17</td><td>14</td><td>12</td><td>9</td><td>7</td></tr></table></td><td></td></tr>
<tr><td>사회 서비스 전달</td><td>- 지역주민 교육 서비스 제공
- 201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 2014년 그룹 홈 간식 매주 지원
- 장애직업 재활시설 매월 현물 후원
- 작은 도서관 8개소 교육 (로컬푸드·식품안전·지구온난화)
- 여성 장애인 연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간식 제공
- 장애인 그룹 홈 정기 간식 제공
- 어린이집 교육(로컬푸드·식품안전)
- 2013년 초등학교 3개소 교육 (녹색청주협의회 펀드)
- 지역아동센터 5개소 교육(자체)</td><td>-</td></tr>
<tr><td>낙후지역 발전</td><td>- 특이사항 없음</td><td>-</td></tr>
<tr><td>환경적 기여활동</td><td>-</td><td>- 지역 농산물 구매 비율 약 80%
- 농가(협동조합)과 직거래 50%
- 햄버거 빵 옥천 장애인 작업장 거래
- 에너지 카페 운영
- 모법인과 협력한 친환경 세제 공급 및 확산 활동</td></tr>
<tr><td>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 관계망 회복</td><td>-</td><td>- 의료생협 연계 의료지원, 근로자 자녀 영어전문교육, 공제조합 참여 지원
- 이주여성 고용 시 다문화 센터에 의뢰, 협력
- 모법인 사업 연계</td></tr>
<tr><td rowspan="3">경제적 측면</td><td>정부조달</td><td>- 인건비 지원 3년
- 전문인력 지원 2인 1년
- 사업개발비 5,000만 원(제품개발,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
- 컨설팅 2회</td><td>-</td></tr>
<tr><td>호혜자원</td><td>-</td><td>- 연계된 어린이집 간식 납품 50%
- 우호적 시민사회단체·기업 45%
- 지역 농민회, 협동조합 매장 입점 두부 제휴
- 녹색청주협의회 교육 사업비
- 수자원공사 등 공공조달 약 1%</td></tr>
<tr><td>민간시장</td><td>- 민간시장 매출비율 5%</td><td>-</td></tr>
</table>

정부조달 내용으로 인건비는 2008년에 시작되어 2011년까지 약 3억 원과 전문인력 고용비용 4,000만 원이 지원되었다.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 5,000만원이 지원되어 제품개발과 홈페이지 구축에 활용되었다.

호혜자원 부분은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났다. 모법인과 연계된 어린이집이 적극적인 거래처인 것은 물론 소개를 통하여 협력관계를 맺은 어린이집의 간식 납품이 5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 A사의 가치를 인정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나머지 50%중 45%가 지역의 우호적인 관계를 통하여 판매되고 있다.

지역 민간단체의 회의, 워크숍, 토론회 등에서 지속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A사는 모법인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실천이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지역 농민회에서 운영하는 매장 입점, 협동조합 매장 입점 등 로컬푸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조직과의 협력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리고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장애인 일자리를 위하여 충북 여성 장애인 연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사업장에서는 여성 장애인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두부를 생산하고 있는데 A사는 그곳에서 두부가 생산된 후에 남는 비지를 매입하여 버거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콩비지는 무료로 제공이 가능하지만 여성 장애인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매입을 하고 있다. 나아가 사업장에서 생산된 두부의 홍보와 판매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그 외에도 수자원공사 등 공공조달 영역이 있지만 비율은 1%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일반시장에 대한 매출비율도 5%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관계의 경제를 통한 사업 유지가 긍정적인 반면 시장화 전략에 과제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A사에게 호혜자원 영역에서 로컬푸드 네트워크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로컬푸드 분야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주체

(1) H사 개요

H사는 2009년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와 N재단의 지원을 통하여 설립되었다. 사업초기 15명이던 인원은 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

지역에 대한 사회 서비스 제공은 당초 사업의 목적대로 결식아동 및 취약계층 급식지원이 중심이 되고 있다. 2009년부터 사각지대 결식아동들에게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각 30일씩 평균 110명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였다. 지역아동센터 7개소 200명에게 시장가 4,500원의 도시락을 3,500원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신규 지역아동센터에 1년간 30명의 급식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런 활동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노동부 인건비지원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일정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K사에서는 지역사회 기여활동을 H사를 통하여 구현하고 있다. 2013년도 3억 원, 2014년도에는 4억 원 지원으로 취약계층 520가구에 대해 주 1회 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2) 개별적 활동에 의한 효과의 사회적 측면

H사는 로컬푸드 실천과 결식아동 급식지원을 중요한 활동 목표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경영상의 문제, 특히 사업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효율성 있는 원재료의 조달이 필요한 시점에서 유통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로컬푸드의 이용은 어려운 문제였다. 현재는 전체 원자재의 10% 정도가 로컬푸드로 이용되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선택을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로컬푸드 네트워크와의 협력도 소원한 상태이다.

> 참여자 6: 사업 초기에 가급적 지역농산물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 농민 직거래도 하고, 영농조합법인과 거래를 만들기도 했어. 그런데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 신선농산물은 저장이 어려워서 매일 조금씩 필요한데 이걸 조달하는 데 비용이 더 드는 일도 있더라고. 그래도 초기에는 그럭저럭 노력했는데, 사업규모가 커지고 일이 늘어나면서부터는 그렇게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게 됐어. 아쉬움은 있었지만 효과적인 방식으로 대형 유통회사와 연계를 하게 되었어. 만약에 유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아마도 지역농산물 비율이 지금보다는 훨씬 높았겠지. 단가보다는 유통의 편이성이 이런 판단을 하게 된 거야.

사회관계망 회복에는 특별한 활동과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참여주민들에게 이렇다 할 자원연계의 필요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사회적 관계가 미미한 상황에서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정보부족이 관계망 지원에 소극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 개별적 활동에 의한 효과의 경제적 측면

H사는 2013년 연간 매출이 7억 원에 이른다. 2014년은 9억 원을 예상하고 있다. 매출은 예비군 훈련장, 지역아동센터, K사 연계사업, 행사용 도시락이 주를 이루고 있다. 원자재의 조달은 전문 식자재 유통업체를 사용하고 있었다. 2013년부터는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 차원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18]. 지역농산물 이용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의 문제와 지역 로컬푸드 수급체계가 정비되지 않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H사는 2009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5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았다. 이외에도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시설 보수를 진행하였다. 정부조달은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을 위한 원동력으로 작용하였다. 현재 중요한 거래관계인 예비군 훈련장 도시락 공급과 학

---

18) N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된 20개 행복도시락 사회적 기업들이 2013년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생관리, 제품개발, 전문성 향상, 식재료 조달, 마케팅 등의 공동모색을 진행하고 있다. 협동조합 협력사업을 통하여 개별 센터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교급식을 공공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사회적 기업을 우대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H사의 가장 큰 힘은 민간 대기업과의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 사업기반 조성과 운영에서 N재단은 2억 원의 지원을 통하여 사업장 마련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업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사업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 직접 지원이 종료된 현재까지도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을 지원함으로서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K사와 연계를 통하여 지속적인 사업의 안정성을 높여주고 있다. 모법인인 I사는 경제적 지원보다는 지역의 수혜자 발굴에 도움을 주고, 전반적인 경영전략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H사의 지역협력 활동은 대표의 활동에 의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의 관계망이 단조로운 것을 볼 수 있다. A사의 사업 구조와는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물론 모법인인 I사에서 로컬푸드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지만 H사의 사업 활동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

H사는 초기 매출 중 우호적 시장이 20% 정도를 차지하였으나 사업이 정상화 단계인 현재는 현저하게 줄어 2% 정도이다. 이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의 시장형성이 하나의 원인이다. 다른 원인으로는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지역의 관계가 느슨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A사의 매출 중 95%가 관계적 시장을 만든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민간시장은 예비군 훈련장과 학교급식을 들 수 있다. 매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매년 입찰을 통해 사업권을 획득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공공성 있는 사업이지만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우대는 없는 상황이다.

4) 로컬푸드 분야 지역 네트워크 참여/비참여 비교

로컬푸드 네트워크에 대한 사회적 목적 실현과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다섯 가지 항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취약계층의 노동통합에 있어 사례 기업 간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A사의 경우 점진적인 감소를 보인 반면 H사는 소폭의 증가추이를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초기 사업 예측의 착오와 경영성과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지역 네트워크 참여자와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없다.

둘째, 사회 서비스 전달에 있어 두 조직은 설립 취지에 맞게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 서비스 제공과 지역 네트워크 참여와의 연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셋째, 낙후지역 발전에 대한 활동은 두 조직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넷째, 친환경적 활동에서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A사가 의미 있는 내용을 보이고 있다. A사의 로컬푸드 이용 비율이 80%인데 비히여 H사는 10%를 보이고 있다. 지속적인 협력을 모색하는 A사의 경우 충북 로컬푸드 네트워크 참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관계망 회복을 위한 활동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H사가 관계하는 자원이 적은 반면 A사는 참여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활동에서 충북 로컬푸드

네트워크를 통하여 2차적 지역관계망을 확보하고 다양한 연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확인하고 동원하는 데 들어가는 노력이 수월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상 논의를 종합해 보면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이 친환경적인 활동과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관계망 형성에 있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수행하는 데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자원동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과 지역 네트워크 참여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세 가지 항목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정부조달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이외에 특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둘째, 호혜자원은 각 기업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A사의 경우 주요 고객층이 어린이집과 지역의 단체들에 집중하고 있다. 전체매출의 대부분이 이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반면 H사는 민간기업의 지원에서 사업의 동력을 확보하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 관점에서 보면 A사가 지역의 호혜적 자원과 잘 결합된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A사의 매출 중 민간시장이 5%를 차지하는 한편 H사는 기업연계 사업을 제외하면 민간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장과의 관계에서 지역 네트워크와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다.

V. 결 론

본 연구는 최근 한국사회에서 국가정책과 법적 제도를 기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역 네트워크에 주목하였다. 특히 충북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네트워크의 형성과 파급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지역 네트워크 참여가 어떠한 유용성을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충북지역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 방안을 조명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참여하지 않는 조직에 비하여 사회적 기여 활동이 능동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기여의 전체지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여활동의 중요한 지표인 환경적 기여활동과 참여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관계망 회복에서 강점을 가진다. 환경적 기여활동은 네트워크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협력하였다. 지역 네트워크 참여단체 간 역할분담과 협력은 해당 이슈를 해결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사회적 경제조직의 태생적 존재 이유인 지역사회의 필요를 발견

하고 해결하는 역할을 견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사회적 기여활동에 있어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조직뿐만 아니라 이를 통하여 알게 된 2차적 관계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사회적 경제조직은 경제활동에서 차별적인 활동이 두드러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중비교에서 경제적 성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지역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지역 네트워크를 통한 호혜적 자원 확보에 유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데 우호적 여건조성에 유리하고 지역의 다양한 관계를 통한 판로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적 기여활동과 경제활동에 있어 지역 네트워크 참여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소가 확인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지역 네트워크보다는 오히려 대표의 역량과 모법인의 영향력이 상당한 힘을 행사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사회적 기여활동에서는 경영환경에 따라 고유의 목적을 유보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 경제활동에서 네트워크보다는 대기업과의 연계나 지역시장 상황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역 네트워크 참여가 지역의 우호적 자원을 확보하고 호혜적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사회적 경제조직의 사회적 기여와 경제활동에 있어 지역 네트워크 참여가 일부분의 유용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환경적 기여, 참여주민의 사회적 배제에 대한 사회관계망 회복 그리고 우호적 자원 동원과 호혜시장 형성에 강점을 갖는다. 이러한 강점들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해당사업 분야의 지역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참여하는 활동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부의 유용성이 확인된 지역 네트워크 참여만으로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여전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 네트워크 강화전략[19]과 이를 통하여 충족되지 않는 지표에 대한 추가적인 활성화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역 네트워크에 집중한 나머지 사회적 기여와 경제활동에서 기업운영의 당사자

---

19) 민관협력을 포함한 지역 네트워크의 사례로 '일본 이바라키(茨城) 지역 원탁회의'를 들 수 있다. 이 원탁회의는 기존 조직들이 법령을 준수하는 것만으로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없다는 기본적 공통인식 하에 각 참여 단위가 지역사회 구성원과 함께 공동으로 고민하고 결정하며 실행하는 과정을 만든 것이다. 즉 지역과제에 맞추어 기업, 경제 단체, 비영리 조직, 학교, 언론 그리고 행정 등으로 원탁회의를 구성하여 기존의 논의 틀을 벗어나 의견을 교환한다. 이는 기존 심의회 등에서 일방적으로 예산과 실행을 행정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각 참여 단위가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을 내고 역할을 분담하는 틀을 넓혀 행정 측에서는 법적 검토를 담당하는 등 새로운 협력관계를 모색하는 것이다. 행정, 기업 측 담당자는 조직 대표자라는 입장이 강조되면 발언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 담당자로서 본인 생각을 피력하는 것을 존중한다. 그리고 행정 측에서 참여 내지 발언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선진 지자체 공무원을 초청하고 설명을 듣는 기회가 마련되면 원활한 참여와 발언을 유도할 수 있다. 앞서 민간 차원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 후에 행정 측 참여를 요청하는 단계적 원탁 형성도 효과를 올리고 있다.

인 대표자의 특성과 지배구조를 반영하지 못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시민의식과 정책 환경 등 지역사회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한계를 가진다.

참고문헌

강제상·김영곤·고대유. (2014). 사회복지에서 시민참여형 거버넌스에 관한 연구: 서울시 희망온돌사업과 시민복지기준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5(2): 153-182.

권해수. (2013). NGO 연구동향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2): 275-289.

김성기. (2010).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연구: 다중이해당사자 참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대학원.

김성훈. (2012).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역전략. 「한국경제의 대안전략과 협동조합」. 손학규 의원실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기념 토론회 자료.

김영미. (2007). 창간호를 발간하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 3-4.

김종수. (2009). 「지역기반형 사회적기업의 태동과 운영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대호. (2015). 「사회적 경제조직의 지역 네트워크 참여가 사회적 기여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청주자원순환포럼과 충부로컬푸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충북대학교 대학원.

사회적기업 활성화 충북네트워크. (2012). 창립총회 및 출범식 자료집.

삶과환경. (2015). 삶과환경 10년 발자취 이슈 사람들.

신경희. (2010). 「서울시 사회적 경제 사업체 연계발전 방안」.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신명호. (2009). 한국의 사회적경제 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이재희. (2015). 「사회적기업간 네트워크 특성과 조직성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장연진. (2010). 여성복지조직의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네트워크 중심성(centrality)과 조직효과성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1(4): 313-343.

정정화·은재호·남재걸. (2014). 한국행정의 주민참여 정책과정 연구: 참여의 정도와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4): 161-185.

청주자원순환포럼. (2013). 네트워크 회의자료.

청주자원순환포럼. (2014). 네트워크 회의자료.

최유미. (2008).「자원봉사조직의 네트워크 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 (2013). 네트워크 회의자료.
충북로컬푸드네트워크. (2014). 네트워크 회의자료.
충북광역자활센터. (2014). 충북광역자활센터 개요집.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2014). 집행위원회 회의록.
(주)미래ENT. (2009). 총회자료집.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2014). 월간 보고서.
(사)충북사회적경제센터. (2013). 사회적기업 개요집.
北川隆吉. (1958). 社会運動の類型と組織.「社会体制と社会変動」. 東京大学出版会.
帯刀治. (2005). 社会運動研究の理論と技法.「社会運動研究入門―社会運動研究の理論と技法―」, 27-57.
帯刀治. (2014). 災害復興課題と地域政策―「人間―環境関係」研究からのアプローチ.
Arnstein, Sherry R. (1969).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Planners*, 34(4).
OECD. (1999). *Social Enterprise*.
OECD. (2001). *Citizen as Partners: Information, Consultation and Active Perticipation in Policy-Making*.
Jacques Defourny. (2009). Foreword. *Social Enterprise Global Comparison*. Lebanon: Tufts University Press, xi-xvii.
Roger Spear, Jacques Defourny, Louis Favreau and Jean-Louis Laville. (2001). *Tackling Social Exclusion in Europe: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conomy*. Aldershot: Ashgate Publishing Ltd.
Rory Ridley Duff, Pam Seanor and Mike Bull. (20111). Measuring Social Outcomes and Impacts. *Understanding Social Enterprise: Theory & Practice*. London: SAGE Publications, 230-246.

접수일(2015년 06월 30일)
수정일(2015년 11월 14일)
게재확정일(2015년 12월 07일)